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광주·전남 인사 대거 참여

허민 전남대 교수 균형발전분과위원장...광주 북구청장 등도 참여 "국가적 과제 선정하고 정책 개발...국민통합의 지혜 모아 나가겠다"

광주·전남 인사들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과 '통합'에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을 표방하는 '성장'과 '통합'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이인주·전현희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 20여명과 300여명 창립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34개 분과 조직 참여 명단을 공개했다.

유종일 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함께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문 구정장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공직 경력과 현지 기초단체장 경력을 인정받아 분과위원장으로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정장은 성장과 통합이 이 후보 캠프의 외부 조직 성격으로 출범해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 결과에 따라 참여했지만, 향후 정식 대선 캠프 조직으로 흡수되면 분과위원장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문 구정장은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유력 후보

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AI 분과 부위원장, 최환주(전 전남대 로스쿨원장) 정부혁신 공동부위원장, 박성현(전 목포해양대 총장) 해양수산 부위원장, 김성진(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산업자원에너지분과 부위원장, 신우진(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균형발전분과 공동부위원장, 홍선기(목포대 글로벌학부 교수) 지속가능분과 공동부위원장, 이윤호(순천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기후위기대응분과 수석공동부위원장 등도 광주·전남 관련 인사로 꼽힌다.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나라를 격정하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함으로써 국민통합에 필요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문인 정부혁신분과 공동위원장은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앙과 지방,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문 구정장 외에도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찾은 국힘 이철우 후보 "지방이 국가 성장의 축"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발전에 대한 비전을 내놨다.

이철우 지사는 16일 광주시의회를 기자회견에서 "광주는 산업과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이 아닌 지방이 국가의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는 51만 주민의 정수를 간직한 도시이자,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며, 예로부터 예향(예)의 도시로 불리며 문화와 예술의 중심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도시"라면서 "민주주의의 중심이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대를 이끌어갈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광주의 주요 현안인 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조성·AI인재 육성과 달빛철도 조기 구축, 호남고속도로의 확장, 복합쇼핑몰 교통대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전남에 대해서는 국립과과대학 설립,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에너지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등의 핵심현안에 대한 현실화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광주는 실력이 있는 도시인데도, 국



가가 제 몫을 주지 않았다"며 "광주를 문화와 첨단 의 포용 도시로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설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절대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권 행보라는 해석은 너무 나간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찬대 당대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공정 경선' 서약

비방·흑색선전·인신공격 않고 깨끗한 경쟁·결과 승복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당원 대상 총청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본격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된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는 이날 후보 등록 후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을 하고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을 것과 깨끗하고 치열한 경쟁, 경선 결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폐쇄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더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과 승복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경선이 폐쇄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더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 크게 단합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등을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간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춤'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중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선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고향(충북 음성)이 있는 충청권에서부터 지지세를 다져나가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충청 방면에 앞서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의 아들로서 지역 순회 경선을 충청에서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고 설렌다"며 "충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충청에서부터 변화의 돌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경선 진출자 8명 확정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기호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선거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선두권인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4명에 진출하고, 한자리를 두고 안철수·나경원 등 다른 후보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차 경선에서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꼽힌다.

반탄파(탄핵소추 반대파)인 김 후보, 홍 후보, 나 후보와 찬탄파(탄핵소추 찬성파)인 한 후보와 안 후보 간 선전이 형성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반탄파의 합종연횡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가부심이 되는 여행
창립 54주년 특별기획

롯데관광이 만든 프리미엄 여행 - 하이엔드
54 HIGH&
비즈니스호텔 / 5성급호텔 / 5성급호텔
전문상담 : 02)2075-3111

대한항공 오솔로 특별 직항 전세기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7/6,13,20,27 8/3,10,17,24,31 9/7 [단 10회]

선착순 50만원 할인!
【플렉스 한정】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종격 북유럽 4개국 9일 8,390,000원 부터*

- 프리미엄 국적기 대한항공 오솔로 직항 전세기 탑승
- 현지 항공 이동 2회 포함(비행기 이동 약 30시간 단속 효과)
- 3대 피오르드 관광 및 게이밍으로 유람선 탑승
- 호텔 코르투 숙박 포함(호텔(신라호텔) 2회)
- 피오르드가 눈에 펼쳐지는 호텔에서의 하룻밤!

정통 북유럽 4개국 9일 5,590,000원 부터*

- 노르웨이 3대 피오르드 [게이밍에르, 송네, 하데르메]
- 현지 국내선 이동 1회 [발싱가, 코펜하겐]
- 바이킹라인 1박 1일(노르웨이+핀란드) 2회
- 160유로 상당 음식 포함 [로맨틱 풀름 열차+몽크 미술품]
- 전 일정 북유럽 전문인솔자 동행

[정부인가조건]

신과 인간의 경계,
카즈베기를 마주한다!

5/11,18,25 6/1,8,15,22,29 [단 8회]

대한항공 조지아 특별 직항 전세기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선착순 50만원 할인!
【플렉스 한정】 출발일별 30명, 일반석 고객 한정

종격 코카서스 3개국 9일 6,390,000원 부터*

- 카즈베기의 낭만 가득한 하룻밤 'ROOMS HOTEL KAZBEG'
- 트빌리시의 야경 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항공 이동 1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피토치드 카즈베기 & 아저트 EASY 트레킹 2회
- 오랫동안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O쇼핑 & NO유선]

[조지아, 아르메니아]

정통 코카서스 2개국 9일 3,390,000원 부터*

- 광활한 자연의 정기를 한눈에 카즈베기 EASY 트레킹'
- 트빌리시의 야경 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2대 와이너리 투어 [조지아 와이너리(소포닉 박물관)]
- 오랫동안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NO쇼핑]
- 전 일정 4성급 호텔 & 코카서스 현지 11대 특식

[정부인가조건]

GRAND HYATT

제주
예약·문의 :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7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2025년 4월 17일

가이드가이드: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여행사 제공)에 따라 상용에 따라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권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권과 경비의 금액 및 선택권과 경비의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정보] ①여행유지 ②여행지 ③여행지 ④여행지 ⑤여행지 ⑥여행지 ⑦여행지 ⑧여행지 ⑨여행지 ⑩여행지 ⑪여행지 ⑫여행지 ⑬여행지 ⑭여행지 ⑮여행지 ⑯여행지 ⑰여행지 ⑱여행지 ⑲여행지 ⑳여행지 ㉑여행지 ㉒여행지 ㉓여행지 ㉔여행지 ㉕여행지 ㉖여행지 ㉗여행지 ㉘여행지 ㉙여행지 ㉚여행지 ㉛여행지 ㉜여행지 ㉝여행지 ㉞여행지 ㉟여행지 ㊱여행지 ㊲여행지 ㊳여행지 ㊴여행지 ㊵여행지 ㊶여행지 ㊷여행지 ㊸여행지 ㊹여행지 ㊺여행지 ㊻여행지 ㊼여행지 ㊽여행지 ㊾여행지 ㊿여행지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산세외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창주공항 ●여행발차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 제외) ●2코출발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